

[사회]

영산강 수질 개선 5,470억 마련 '비상'

오염 총량제 본격 시행 국비지원 10~30% 불과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광주시가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1일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가 제출한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나주 경계지점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오는 2010년 말까지 당초 5급수인 8.2ppm에서 3급수인 5.6ppm으로 개선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3차처리시설 605억원 ▲중양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3천429억원 ▲소촌·송암 하수관거 정비 344억원 ▲마을하수도 17개소 설치 192억원 ▲영산강 하천 직접정화시설 900억원 등 모두 5천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광역시의 경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1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1년 투자비용이 1천억원 미만에 머물러 있는 광주시로서는 국비지원율을 90%로 올려달라는 건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음식 폐기물 자원화 시설

침출수 처리 못해 정상가동 지연

광주시가 운영중인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정상가동이 늦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연말 광산구 송대하수처리장 내에 72억원을 들여 완공한 이 시설은 1일 처리용량 150t 규모로 지난 1월부터 시험가동을 해왔다.

광주시는 시험 가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1차 처리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이었지만 농도가 2만 ppm을 넘어서는 등 목표치 7천500 ppm을 훨씬 초과해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1개월 시험운영 뒤 들어갈 정상가동 계획이 계속 지연되면서, 과일 등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도

▲영산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지난 2002년 제정된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나주 등 영산강 수계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규모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제도. 만약 목표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택지 및 공단, 관광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계획대로 수질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하수처리장 등 할당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해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투자결과를 보면, 4대강의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평균 82.4%인데 비해 영산강과 섬진강은 자치단체들이 지방비를 분담하지 못해 49%에 머물고 있다"며 "국비지원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목표 시기 연장 등 환경부와 재협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 1일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413t으로, 그동안 서구 유덕동 음식물 자원화시설(1999년 건립)에서 300t을 처리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침출수 처리를 위해 원심분리기 추가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처리용량을 넘어선 100여t 음식물 쓰레기는 나주 등 외지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등 단기간 수억원의 비용을 써왔으며, 지난 해 여름에는 수박 등 과일쓰레기가 넘쳐 하루 처리 용량을 훨씬 넘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겪기도 했다. /김주정기자 jnews@

광주지법 판사들이 평가한 재판진행 점수는?

절반이상 "법정분위기 만족 못해"

"진행속도 잘함" 47%

쉬운 용어 사용도 미흡

'판사들의 재판진행 과정은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될까?' 광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 진행과정을 직접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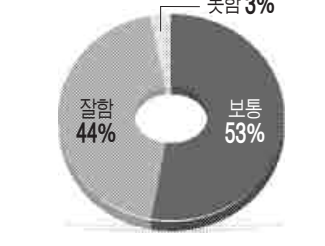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을 들어 두 차례 지법 내 모든 지원과 25개 재판부에 대한 재판과정을 웹 코너로 촬영한 뒤, 34명의 판사가 이를 공동 모니터링했다. <도표> 모니터링 후 설문조사 결과 '법정 분위기가 온화하고 생동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보통', 9%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기존 법정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진행 속도에 대한 질문에도 47%가 '잘함'이라고 답한 반면, 절반 이상이 53%는 '보통(50%)'과

법정분위기 온화하고 생동감 있는가?



판사들 쉽고 정확한 용어 사용하는가?



'잘못(3%)'이라고 답했다.

소송 관계인과 의사소통 문제의 경우 응답자의 4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54%는 '보통' 또는 '못함'이라고 답해 앞으로 소송 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적절한 진술 기회 제공과 배려에

대한 항목에서는 각각 62%와 56%로 '잘하고 있다'고 답해 소송 관계인들에 대한 배려는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판사들의 말투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말하는 속도와 발음, 온화하고 품위있는 말투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법정 마이크 사용과 쉽고 정확한 용어 사용 등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판사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의 적당함 미소 ▲소송 당사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 ▲선고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무의식중의 반말투 느낌의 발인 자제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바람직한 재판 운영을 위해 강령주 수석부장을 회장으로 한 '광주지법 법정운영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 불합리한 재판과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고법에 '小법정' 생긴다

신속 재판위해 내달 시범설치

광주고등법원에 오는 5월 '소(小)법정'이 설치된다.

광주고법은 현재 각 재판부에 1개 이상씩 설치된 총 6개의 조정실(변론조정실)을 방청석 10석 규모인 7~12명 가량(방청석 10석 규모)의 삼각형

소법정과 17~18명 규모의 타원형 소법정으로 각각 전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소법정 설치는 ▲재판의 효율성 향상 ▲판사들의 위압감 감소 ▲구술심리 재판 활성화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소법정은 판사들이 앉는 1.2m 높

이의 법대를 비롯해 증인석, 원고석, 피고석, 변호인석, 방청석을 두루 갖춘 30명 남짓의 기존 법정을 방청석 규모를 줄이고 법대를 대폭 낮춘 7~12명 크기의 이른바 '미니 법정'이다. 광주고법은 판사 13명, 참여사무원 4명, 변호사 4명으로 '구술심리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달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 운영현황 점검과 바람직한 구술심리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찰에선 이런 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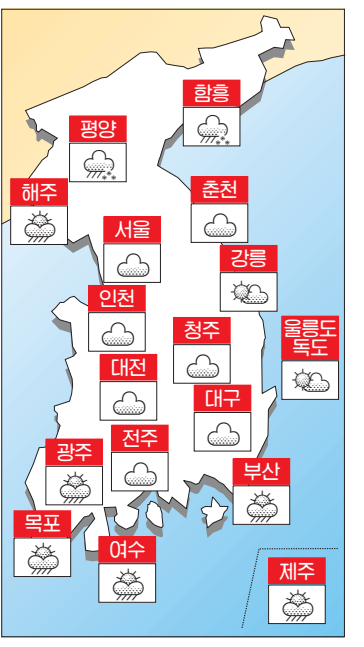
전반을 소개하는 '오픈 하우스'(OPEN HOUSE) 행사를 가졌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은 25일 '제 43회 법의 날'을 맞아 곡성군 내 초등학생 40여명과 교사 등을 초청, 지검 내 주요 시설 및 검찰 업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산 챙길까 말까 4월 26일 (음 3월 29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10~18℃
대전	흐리고 비	10~17℃
대구	흐리고 비	12~16℃
부산	흐리고 비	11~16℃
서울	흐리고 비	11~16℃
인천	흐리고 비	8~18℃
안양	흐리고 비	11~16℃
고양	흐리고 비	9~16℃
의정부	흐리고 비	9~16℃
하남	흐리고 비	7~18℃
고성	흐리고 비	9~17℃
영주	흐리고 비	11~17℃
의성	흐림	9~18℃
영천	흐림	7~19℃
영동	흐림	8~18℃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0:44 썰물 < 06:09
여수 밀물 < 08:01 썰물 < 01:42

해돋이 05:48 해질 19:14 달뜨기 04:38 달지기 17:33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목)	28(금)	29(토)	30(일)	5/1(월)	2(화)
날씨						
최저/최고	9/18	6/22	9/23	11/23	12/26	12/25

문구점 등 수입식품 6.3% '부적합'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광주시내 재래시장·대형마트·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 식품기준치를 초과하는 '불량' 수입식품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내 재래시장·대형마트·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유채리 식품류·사탕류·사탕류·건포류 등 등 308건의 수입식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6.3%인 25건의 수입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건포류 및 건과실류 등 129건 중 13건(10.0%)에서는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며, 이중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

우는 ▲건포교버섯 2건 ▲무우말랭이와 건새우 각 1건이었다. 이산화황은 기관지염·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유채리식품의 경우 유지의 산패 정도 및 산화 속도를 나타내는 산가 및 과산화물가의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전체 130건 중 19건(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탕류의 경우 139건에서 허용 외 인공감미료가 2건 적발됐다.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의 식품 가운데 중국산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산 3개, 말레이시아·캐나다·북한·일본산 각 1개씩이었다. /김주정기자 jnews@

민노총 "내일부터 4만명 연대파업"

현대하이스코 사태 관련

'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희성)는 오는 27일부터 조합원 4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25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하이스코와 협력업체들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협약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파업 선언 시한인 27일 정도까지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에 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기아자동차 ▲캐리어 ▲삼호중공업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 등이 참여한다. 민노총은 연대파업과 함께 27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경찰과 충돌이 예상된다. /임주희기자 jhlm@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이들은 카라!!

실운도

4월 27, 28일

무강전국 100%

광상무나이트

광주광역시지지도자연수원

2.10.1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 06평기준 148만원

삼우상사

당선확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011-600-6594